

전시

##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다양한 문화 소통 장

공연장에 붉은 동백이 떴다. 무대 위 스크린에 투사되는 서양화가 조진호의 아름다운 꽃그림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었다. 국악인 윤진철씨가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르자 작곡가 김현옥의 피아노 연주가 뒤를 잇는다.

영화 ‘미션’ 한 장면이 흐르고, 오보이스트가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를 선사했다. 처음 접해본 주홍씨의 샌드아니메이션도 흥미로웠다.

지난달 28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뱅미드는 공연-2011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을 보면서 ‘김원중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내고, 덕분에 광주 시민들은 매달 한차례(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행복한 선물을 받게됐다.

▲윤진철·주홍 등 예술인 무료 참여 ‘달거리 공연’은 2003년 시작됐다. 매달 한차례 주제를 정해 함께 노래하고,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 손님을 초대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마음도 담았다.

2004년 한 해 더 진행된 ‘달거리 공연’은 어렵게도 6년여의 공백기를 가졌다. 이후 지난해 다시 시작됐고 올해는 공연장소도 소극장인 드맹아트홀에서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옮기면서 규모도 커졌다.

‘달거리 공연’이 인상적인 건 다양

한 문화 장르간의 소통이다. 미술, 음악, 국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모두 무료로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현옥·윤진철·주홍씨가 매회 참여하고 임남진·김해성·신양호·채경남·최재영·박태후·한희원·고근호씨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은 매달 다채로운 그림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달거리 4월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박남준 시인

클래식·대중음악·국악·미술·문학의 어울림

매달 관객과 만남… 빛고을시민문화관서 25일 공연

티켓은 성금으로 대신… 관객과의 뒷풀이 시간도

4월의 주제는 ‘꽃이 하는 말’이다. 개나리·벚꽃·진달래가 흐르리지게 피는 봄날에 제격인 주제다. 이야기 손님으로 지리산 자리에 머물고 있는 박남준 시인까지 초대했으니 상차림은 더욱 풍성해졌다. 영광 출신으로 지리산 ‘벼들치 시인’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시집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로 제13회 천상병 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익금은 북한어린이돕기 사용 이번달 무대 그림은 ‘사색있는 그림’을 그리는 한국화가 오경규씨가

마지막 무대는 주인장 김원중이 장식하며 공연 후에는 로비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뒷풀이가 마련돼 있다.

달거리 공연은 때로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 대신 공연장에 비치된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보탠다. 2003년~2004년에는 2000만원을 모았고, 지난해에는 1417만원을 모았다.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빵 8만5000개를 만들 수 있는 액수였다.

올해 첫 번째 행사였던 3월 공연 수익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섬나이 독립기념일에 사용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3월 열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에 참여한 윤진철씨와 김원중의 모습. 뒷풀이 그림은 화가 조진호씨가 그렸다.

### 獨 첼리스트 얀 포글러 광주 무대에

내일 전남대 음악홀

독일 출신 첼리스트 얀 포글러(Jan Vogler)가 23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모리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창시자이자 드레스덴 음악축제 예술감독인 얀 포글러는 이날 바이올리니스트 콜린 제이콥슨, 박해윤, 비올리스트 리제 베르토, 피아니스트 안티 시랄라 등 국내외 젊은 아티스트들과 퀸텟을 구성해 무대에 선다.

연주 레퍼토리는 작곡가 윤용하의 ‘보리발’, 모차르트의 ‘파이노 트리오’, 피아졸라의 랭고 음악,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곡’ 등이다.

이번 음악회는 주한독일대사관과 전남대학교가 함께 마련했으며 얀 포글러는 공연에 앞서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그는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발, 모리츠부르크 페스티벌 아카데미 2주 참가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62-530-1270./김미은기자 mekim@

### ‘피아노 콘체르토 페스티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5일 정기연주회



윤·송선미·  
강소연·이혜  
진·범영숙·  
조혜원·함지  
연·최보람씨  
가 출연한다.

숙명여대, 빈 국립음대 출신으로 현재 숙명 신포니에타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여성 지휘자 신은혜(시진)씨가 객원지휘자로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최혜



사랑이야기Ⅵ

### 김덕순 개인전

내달 1일까지 자미갤러리

종교적 삶을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김덕순씨가 오는 5월 1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화려한 색감과 거친 질감이 조화를 이룬 신작을 발표한다.

‘사랑이야기’는 교회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는 착각을 일으키며, 색과 선을 통해 조각을 낸 화면에 신의 사랑, 신과 인간의 사랑 등을 표현했다. 색을 덧칠해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포착했다.

또 ‘나는 순례자’ ‘다 이루었도다’ 등 예수의 삶과 성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연작도 눈에 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불교국가 미얀마 사람들

#### 라규채 초대전

26일부터 로터스갤러리

음식을 거부하는 자연 섭생을 체험하며 ‘비움’의 세계에 천착했다.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동굴 등을 다니며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라씨는 ‘바다의 숨결’, ‘대나무 시리즈’ 전 등 4차례의 개인전과 ‘필름 속을 걷다’ 전 등 2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무등산 물꽃 사진전’ 등 사진집도 냈다.

문의 062-383-01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eho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초슬립!!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  
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광주 등산장비의 자존심

 백두산악

왜! 백두산악에 열광 하늘까!

- 하나 초보부터 전문 산행까지 고루 갖춘 투탈 보전드!
- 둘 등급 수입의 체계부터 유토 체험! 장비까지 다 있다!
- 셋 기품이 있고 더 싸고 믿을 수 있다!

직원 수시 모집

문의/전화 ☎ (062) 267-2562  
♣ 기업체 판촉물 상담환영 ♣

 (주)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지하철 : 김대중 컨벤션 센터(3번출구)에서 공항방면 500m 위치  
버스 : 19, 20, 38, 62, 73, 160, 1000 서창입구 정류장 하차